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6, No. 140, pp.623-638
<https://doi.org/10.29212/mh.2026..140.62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참관기] 고대 군사의 지휘체계 · 운용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

- ‘고대 군사 지휘체계와 운용’ 참관기 -

신광철 | 국립중앙박물관

정덕기 | 중부대학교

- 목 차
1. 들어가며
 2. 삼국의 군사 지휘체계 다시 보기
 3. 고대 군사 지휘와 병력 운용에 대한 새 접근
 4. 나가며

1. 들어가며

2026년 7월 29일(수) 전쟁기념관 문화아카데미에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고대군사사연구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전쟁기념관이 후원한 학술세미나 「고대 군사 지휘체계와 운용」이 열렸다.



‘고대 군사 지휘체계와 운용’ 학술세미나 주요 참여자

군사사 분야에서 유사한 주제를 다룬 학술세미나는 일찍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가 지니는 기획측면에서 이번 세미나가 지니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를 한국 고대 군사사 연구사의 흐름 속에 위치시켜 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삼국시대 군사제도에 대한 포괄적 인식은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 이기백(李基白)의 선구적 연구를¹⁾ 제외하면, 2000년대 이전의 군제사는 대개 관제사·

1) 李基白, 1974,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서울: 一潮閣.

지방통치사의 부수적 논제로 다루어졌다. 이문기(李文基)와²⁾ 김영하(金瑛河)³⁾ 등이 이 분야의 초석을 닦은 이후, 2010년대에 들어 소장 연구자들이 삼국의 군사조직과 전쟁사를 개별적으로 정치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학술세미나의 발표자와 토론자 다수가 바로 이들 소장 연구자군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단순히 원로 학자들의 성과를 종합하는 자리가 아니라, 최근 10년 이상 축적된 신진 연구자들의 성과를 ‘지휘체계’라는 공통의 화두 아래 한자리에 모아 상호 검증하는 최초의 장(場)이었다는 점에서 세대론적으로도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고대군사사연구회라는 두 주최 기관의 성격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전자가 군사(軍史) 편찬이라는 행정적·제도적 기반 위에서 축적된 다년간의 실무·연구 역량을 지닌 기관이라면, 후자는 관련 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순수 연구 공동체로서 항상 새로운 연구를 열정적으로 수행하는 젊은 실력과 모임의 성격을 지닌다.

이 두 기관은 성공적인 학술세미나 준비를 위해 약 8개월여의 시간동안 공을 들였다. 양측 모두 긴 시간 동안 충실히 준비해 온 만큼, 이번 학술세미나는 고대군사사 연구의 질적 수준을 한 차원 더 진전시켰다고 자평(自評)할 수 있겠다.

학술세미나는 5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을 크게 2부로 구성하였다. 학술세미나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李文基, 1997, 『新羅兵制史研究』, 서울: 一潮閣.

3)金瑛河, 2001,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서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개회	개회사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축사 : 이재준(고대군사사연구회장)
1부 : 삼국의 군사 지휘 체계	
1발표	고구려 군사 지휘체계 시론 발표 : 신광철(국립중앙박물관) 토론 : 정동민(동북아역사재단)
2발표	백제 좌장의 명칭과 군사 지휘체계 속 운용 양상 발표 : 나용재(단국대학교) 토론 : 이재준(충남역사문화연구소)
3발표	신라 중대 9서당의 운용 형태 발표 : 홍성열(전쟁기념관) 토론 : 권창혁(포항시청)
2부 : 고대 군사 지휘에 대한 새로운 접근	
4발표	신라 중고기 정(停)의 체계와 군주(軍主)의 역할 발표 : 신범규(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토론 : 이상훈(육군사관학교)
5발표	당대 병모(兵募)의 진수(鎭守)와 진훈(鎭勳) 발표 : 조재우(동국대학교) 토론 : 정덕기(충부대학교)
종합토론	좌장 : 한준수(국민대학교) / 발표자·토론자 전원

이를 보면, 이번 학술세미나에서 다섯 편의 발표를 ‘고구려-백제-신라-신라-당’이라는 순서로 배치한 것 역시 단순한 시간 순에 따른 나열이 아니라 의도된 서사적 구성으로 읽을 수 있다. 1부는 삼국을 병렬적으로 개관함으로써 ‘지휘체계’라는 개념이 각기 다른 정치체에서 어떻게 상이하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반면 2부는 지방 군사거점(停)과 징병된 병력(兵募)을 통해 신라와 당이라고 하는 두 나라의 군제(軍制) 연구를 심화함으로써, 1부에서 병렬적으로 제시된 문제의식을 하나의 사례에 대한 입체적 조명으로 수렴시키는 구조를 취하였다.

즉, 각각의 발표는 연구 대상과 사료의 성격은 달랐지만, 왕권과 장수 등의 현장 지휘관, 중앙군과 지방 거점, 평시 조직과 전시 편성, 군역과 보상 사이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복원하려 했다는 점에서 공통된 문제의식을 보인 셈이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찜통더위·폭염 속에 진행되었지만, 각계각층의 다양한 청중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특히 다년간 군사사 연구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소장 연구자들이 참신하고 새로운 시각의 주제를 선보이며 활발한 발표와 토론을 준비한 것이 세간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무더운 날씨에도 마지막까지 흥미로운 시선으로 학술세미나를 지켜봐주신 청중께 이 지면을 빌려 감사드립니다.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청중(전쟁기념관 2층 문화아카데미)

이어서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하신 학계·대중 여러분께 현장에서 깊이 있게 이루어진 발표와 토론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게 학술세미나의 구성을 따라 부별 주제 발표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살피도록 하겠다.

2. 삼국의 군사 지휘체계 다시 보기

1부는 1~3발표로 구성되었다. 1발표는 고구려 군사 지휘체계를 시론적으로 검토하였다. 발표자는 고구려 군제사 연구의 한계를 정면으로 인정하면서도, 단편적 관직명이나 개별 전투 기사를 무리하게 봉합하지 않고, 가능한 요소들을 정리하여 연결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주력했다.

발표의 실질적 논지는 크게 세 갈래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5세기를 기점으로 왕의 친정 빈도가 줄어드는 현상을 광개토왕대 이후 영역 확대와 전선의 다변화라는 맥락에서 접근하고, 이를 통해 고구려의 군사 지휘체계가 ‘왕의 친정’이라는 단일축에서 예하 장수와 군단의 분화라는 다층적 구조로 변화하였다고 파악하였다. 둘째, 고구려가 신점령지에서 흡수한 군사력을 재편·통제하는 과정을 육살·처려근지 등 지방관의 군사적 성격과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성곽을 중심으로 한 방어체계를 ‘협의(狹義, 즉 개별 군사거점)’와 ‘광의(廣義, 즉 관할구역 전체)’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고구려 지방통치체제가 군정(軍政)과 민정(民政)이 결합된 형태로 발전해 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단, 왕의 친정 감소를 왕권의 성격 및 정치적 상황과도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 진대법 시행의 경제적 기반을 두고 제시한 가설의 명료화 부분, 현대 군사학 개념을 비교의 언어로만 절제하여 사용할 필요성 등은 향후 발표자가 고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시론의 가치는 완결된 결론을 제시하는 데 있지 않지만, 향후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발표는 백제 군사 지휘체계의 관점에서 좌장(左將)이라는 존재를 규명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이다. 당연히 이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방법론적 시도는 ‘왜 우장(右將)이 없이 단독으로 좌장이 존재하는가?’라는 점이다. 특정 관직을 통해 전체 지휘체계를 읽는 미시적 접근의 확장이 엿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국왕의 군령권을 대행하는 고유 관직’으로서의 좌장의 성격 규명이다. 이를 위해 도가·유가 계통 문헌 속 관념사적 맥락, 전한(前漢) 및 신라의 비교 사례, 그리고 최근 학계에 보고된 부여 관북리유적 16차 발굴조사 목간 자료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입체적으로 논증하고자 하였다.

‘좌우 관념’을 통해 우장의 부재를 설명하거나 예제(禮制)의 ‘국왕=우, 좌장=좌’ 구조로 설명한 부분이 발표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만큼, 직접 증거가 약하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동시기 신라나 당의 장군호에서는 좌우(左右)가 모두 보인다는 점, 예제의 ‘남좌여우(男左女右)’나 ‘좌존우비(左尊右卑)’와 같은 관념을 도가적 좌우관 및 백제의 군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시적 소재(단일 관직명)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명칭의 어원, 정치적 위상, 전장 운용 범위 등을 함께 검토했다는 점에서 향후 백제 군제사 연구에 있어 하나의 모범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아울러 신자료가 추가된다면, 동시기 다른 나라에는 없는 ‘좌장’이라는 장군의 실체에 보다 정교하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발표는 신라 중대 9서당의 실재와 운용 형태를 당 군제와 비교하여 재구성하였다. 핵심 논지는 신라의 시위조직인 시위부(侍衛府)와 9서당으로 대표되는 중앙군의 운용 방식이 당(唐)의 북

아(北衙)·남아(南衙) 등으로 구성되는 금군의 체계와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신라가 당의 군제를 변용해 독자적인 편제를 갖췄다는 것이다.

즉, 시위부가 국왕의 사적 공간과 최측근 경호를 담당했다면, 9서당은 궁성·도성의 방어와 치안, 유사시 출정을 담당하는 중앙군(상비군)이었다고 본 것이다.

본 발표의 방법론적 강점이라 하면 신라 중앙군 연구에 있어 국내적 시각에 머물러있지 않고, 『당육전(唐六典)』 등을 활용하여 신라 9서당의 운용 양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려 했다는 것이다. 신라가 621년 이래 지속적으로 당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였다는 전제를 통해, 그간 개별적으로 다루어졌던 신라의 대당외교사와 군제사 연구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도 주목된다.

그간 신라 중앙군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온 ‘당제(唐制) 수용’이라는 변수를 9서당이라는 구체적 대상에 정밀하게 적용하여, 신라 중앙군 연구를 동아시아 군제사라는 보다 넓은 비교사적 지평 위에 올려놓았다는 점이 본 발표의 가장 큰 학술적 함의가 아닐까 싶다.

단, 9서당의 구성원 중 상당수가 신라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부병제적 번상 교대 방식 속에서 어떻게 편제되었는지, ‘9서당≒남아금군’이라는 대응 구도가 신라 중대 전 기간에 걸쳐 균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인지 여부 등은 향후 발표자가 계속 고심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3. 고대 군사 지휘와 병력 운용에 대한 새 접근

2부는 4~5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다. 4발표는 신라 중고기 정제(停制)의 변화와 군주(軍主)의 역할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일찍부터 신라 군사력의 핵심으로 정(停)과 당(幢)이 지적되었다. 당(幢)은 부대로 보는 것에 이견이 드물지만, 정(停)의 성격은 논자별 이견이 분분하다. 정은 ①군사 기지, ②주 치소(오늘날의 도청 소재지와 유사), ③군사 조직 등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정은 군사 조직으로 보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군단(軍團)으로 이해한다. 『삼국사기』, 무관조에서 “신라인은 영(營, 즉 부대)을 정(停)이라고 하였다”라는 세주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발표에서는 『삼국사기』, 무관조의 “영(營)=정(停)”은 중대의 모습을 위주로 한 설명이라고 하였다. 중고기의 정은 군사 기지·주둔지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정과 군주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정은 초기 임시적 주둔지를 의미하였고, 차츰 군사 기지의 성격을 가진 정으로 발전해나갔다. 상황에 따라 정의 위치를 자주 옮겼고, 필요에 따라 주요 거점에 복수의 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군주는 정의 최고 지휘관이며, 관할 지역 내 법당에서 병력을 총원하여 상비군으로 운용하였다. 중고기 군주는 ‘당주-감사지’의 군관 조직을 통해 정을 운영하였다. 중대 초 통일전쟁기의 총력전 체제를 거치면서, ‘대감-제감-소감-화척’ 등 대당의 군관 조직이 정에 이식되었다.

군주 예하에는 군사 업무 처리를 위한 보좌역으로 조인(助人)

이 있었다. 금석문에서 군주는 관할 구역만 명시한 사례가 있지만(예 : 비자별(창녕)(정)군주), 조인은 ‘□□정’을 명확히 기록하였다. 이것은 정 외 광역주 혹은 주요 성·촌에 조인이 파견되어, 조인의 소속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대 초 군주는 광역주를 총괄하는 지방관으로 변모하였다.

4발표는 통설과 달리, “영(營)≠정(停)”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정·군주의 시기별 변화상과 군주의 지방 장악 과정, 중고기 정의 운영 체계를 군주-조인-당주-감사지 등 군관 조직으로 구체화하였다. 또 신라 군사력의 2대 축인 당제·정제의 영향 관계를 설명하고, 중대 군사 운용 체계에 접근하는 단서를 제공하였다. 군주 예하 군관 사이의 관계, 지휘관·참모 관계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아쉽지만, 그간 논의되지 않던 중고기 정의 외형적 틀을 제시해 학술적 의의가 높다고 하겠다.

5발표는 당 전기 군사 동원의 형태인 병모(兵募)의 운용과 병모 유지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였다. 글자만 보면 병모는 모병으로 이해되지만, 당 전기 병모는 징병으로 구성된 병종의 하나이다. 당은 대외원정 시 대규모 전시야전군인 ‘행군’을 구성하였고, 병모는 ‘행군’이 경유하는 주현에서 징병을 통해 충원한 병력이자 ‘행군’의 군사력을 지탱하는 병종이다. 주로 부유하고 정남이여럿인 가호의 백정을 징병하였고, ‘행군’이 임무를 완수하면 군공에 따른 포상을 받은 후 해산·귀환하였다.

당 고종 전반기까지 병모제는 잘 유지되나, 당 고종 후반기~무측천 시기 이후 병모제가 동요하였다. 당의 대외정책이 공세에서 수세로 전환되었고, 행군은 변경의 군진(軍鎭) 등에 진수·상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병모는 약 2~4년 기한으로 연한 교대가 이루어졌다. 당은 병모의 공로를 보상하여 진수 기간에 따라 일정 등급의 훈관을 수여하는 진훈을 내렸다. 진훈을 받아

훈관이 되면, 일체의 세역을 종신토록 면제 받았으므로, 진훈은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이었다.

이후 병모의 진수 기간 장기화·처우 악화 등이 나타나면서, 점차 병모의 회피·도망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당은 진훈을 마련하나, 열악한 처우 속 장기 진수에 따른 불만에 대응하지 못했다. 당은 병모를 더 유지·지속하지 못했고, 건아를 통한 모병제로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이 글은 징병제 운영의 어려움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 논의하였다. 이 점에서 징병제 붕괴가 가속화되는 현재에 일정한 의의를 주는 글이다. 진훈 수여를 통한 ‘종신토록 모든 세금 면제’는 상당히 파격적인 대우이나, 열악한 처우·전역이 어려운 부대 생활에 대한 불만을 이길 수 없었다. 현재의 한국은 징병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운영하는지 반추할 필요가 있다.

또 이 글은 유인궤의 「진파백제군사표(陳破百濟軍事表)」를 소개하였다. 표문은 유인궤 열전에 수록되었고, 한국고대사에서도 다소 알려진 자료이기는 하다. 그러나 당 군사사의 맥락에서 이 자료의 의미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또 표문은 나당 간 중요 외교 문서인 「답설인귀서」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상에서 이 글은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2부의 마지막 순서는 종합토론이다. 2발표에서 제시되었던 백제 군례상의 좌우 관념에 따라, 종합토론은 좌장을 기준으로 토론자·발표자를 좌우로 배치하여 진행하였다. 종합토론은 시간 관계상 발표자·토론자의 질의응답 후,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학술세미나 종합토론(좌측 : 발표자, 우측 : 토론자)

양질의 토론문이 많았지만 시간은 넉넉하지 않았으므로, 토론자 스스로 핵심 질문을 추려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문의 원문은 학술세미나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개별토론자의 질문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다.

고대군사사연구회는 대개 더 좋은 글을 위한 토의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발표문을 공격하거나 논파하기보다, 동료 의식을 가진 연구자의 입장에서 포용성을 갖고 상보적 토의를 하는 것이 고대군사사연구회에서 지향하는 바이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도 이러한 토론을 통해 좋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고, 발표자들은 종합토론에서 논의된 의견을 잘 반영하고 보완하여 한층 발전된 성과물을 도출할 것이다.

청중은 주로 통사 속 군사사와의 관계를 위주로 한 질문을 던져주었다. 고대와 전근대 군사 지휘체계의 관계, 현대 한국 군사 지휘체계와의 관계 등에 대한 수준 높은 질의가 있었다. 이러한 청중의 수준 높은 질의는 군사사 연구에 대한 높은 수요를 비롯해 고대군사사연구회의 활동 반경과 외연이 더욱 확장되길 바라

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학술세미나를 준비한 주요 참여자들은 이러한 수요·기대에 적극 부응하여, 다음에는 더 넓은 시야에서 다양한 분야의 논의가 오갈 수 있는 학술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4. 나가며

이번 학술세미나를 총괄적으로 평가하자면, 무엇보다 ‘군사 지휘체계’라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개념을 매개로 삼국과 당의 군사제도를 하나의 학술적 지평 위에 올려놓았다는 기획 자체의 참신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한국 고대 군사사 연구는 각국사별로, 또 세부 분야별로 상당히 파편화되어 진행된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파편들을 ‘지휘체계’라는 하나의 실로 꿰어보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학술사적 이정표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고대군사사연구회를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고대군사사연구회는 2017년 12월 15일 신라 군사사 전공자 교류 모임으로 출발하였고, 2018년 2월 22일 연구회 결성·학술회의 개최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8년 6월 23일 ‘신라 군사사의 새로운 이해’ 학술대회를 개최한 후, 논의의 확장을 위해 고대군사사연구회로 명칭을 바꾸고 활동하였다. 이후 약 8년동안 매년 1~2회 정도의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며 고대군사사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소소한 연구자 모임으로 시작한 연구회가 젊은 연구 인력풀을 갖추고 각종 새로운 문제의식의 학술세미나를 열 수 있었던 기저에는 국내 유일의 군사사 전문 연구 기관인 국방부 군사편

찬연구소의 심대한 노력이 있었다. 특히 군사편찬연구소의 정형아 군사사부장과 한동훈 선임연구원은 고대군사사연구회의 활동을 오랜 시간동안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셨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주제부터 어려웠지만, 성공적인 학술세미나를 위해 최선을 다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감사드리며 이 글을 갈음한다.

부록 : 고대군사사연구회의 발자취

연월일	연구회 모임 준비 활동
2017.12.15	신라 군사사 전공자 교류, 군사사연구 모임 창립 준비 (한준수·이상훈·정덕가·신범규·홍성열 등)
2018.02.22	충무로에서 신라 군사사 연구 모임 활성화, 학술대회 개최 결의(한준수·이상훈·신범규·송영대·김병희 등) → ‘신라 군사사의 새로운 이해’ 개최 계획 수립

개최연월일	고대군사사연구회가 참여한 학술 대회·세미나 활동
2018.06.23. 창립기념일	신라 군사사의 새로운 이해 (주최 : 한국고대사탐구학회) → 논의 확장을 위해 ‘고대군사사연구회’로 개명·창립
2020.01.17	한국 고대 군사사와 동아시아 (주최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1.06.25	고대 동아시아의 수군 (주최 : 한국고대사탐구학회·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한성백제박물관)
2021.12.10	삼국 통일기 정치와 군사 (주최 : 북악사학회·국민대학교 교양교육설계연구소)
2022.03.25	삼국 각축의 현장, 임진강 (주최 : 한국고대사탐구학회·한성백제박물관)
2022.09.23	삼국의 각축과 한강유역 (주최 : 경기문화재단연구원·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2.11.26	해적의 바다, 해적의 고대사 (주최 : 백산학회)
2022.12.10	한국 군사사의 새로운 도약 (주최 : 한국군사사학회)
2023.04.01	고대 군사사의 제양상 (주최 : 북악사학회·고대군사사연구회)
2023.04.15	2023 군사사 콘텐츠의 현재와 미래 (주최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화랑대연구소)
2023.10.16	삼국시대 한강유역의 관방체계와 전쟁 (주최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4.09.27	7세기 후반 삼국의 격변과 신라의 삼국통일 (주최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4.11.16	한국 고대 군사와 의례 (주최 : 신라사학회·고대군사사연구회)
2025.05.10	고대의 군사동원과 무구생산 (주최 : 북악사학회·고대군사사연구회)
2026.04.11	고대 군사사 콘텐츠의 현재와 미래 (주최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화랑대연구소)
2026.07.29	고대 군사 지휘체계와 운용 (주최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고대군사사연구회)

발간연월일	고대군사사연구회가 참여한 편저 등 공동 성과물
2020.06.25	『고대 군사사와 동아시아』, 경인문화사
2022.04.28	『고대 동아시아의 수군과 해양활동』, 도서출판 온샘
2023.12.31	『삼국시대 한강유역의 관방체계와 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5.03.01	『7세기 후반 삼국의 격변과 신라의 삼국통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05.10	『고대 군사사,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산책(교양서)

〈참고문헌〉

- 金瑛河, 2001,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서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李基白, 1974,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서울: 一潮閣.
李文基, 1997, 『新羅兵制史研究』, 서울: 一潮閣.